

1



1 박수근미술관 전경  
2 박수근미술관 아카이브 특별전을 둘러보는 관람객  
3 박수근 화백 '아기 업은 소녀'

## 고향 온 박수근 작품 특별전에 관람객 발걸음 이어져

강원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이 진행하는 아카이브 특별전에 관람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은 지난 5월 6일부터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모은 아카이브 특별전을 열고 있다.

‘한가한 봄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업은 소녀’를 주제로 한 특별전에서는 고 이진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기증한 유화 4점, 드로잉 14점 등 18점을 포함해 총 61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은 삼성으로부터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양구 출신 1세대 서양화가 박수근(1914~1965)의 유화 4점과 드로잉 14점 등 작품 18점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화 작품은 ‘아기 업은 소녀’(34.3x17cm, 합판에 유채, 1962), ‘농약’(20.8x29.3cm, 하드보드에 유채, 1964), ‘한일’(閑日, 33x53cm, 캔버스에 유채, 1950년대), ‘마을풍경’(24x39cm, 하드보드에 유채, 1963) 등 4점이다.

이 중 한일은 해외에 반출됐다가 2003년 3월 24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돼 국내로 돌아온 작품이다. 아기 업은 소녀는 경매에 잘 출품되지 않아 구하기 힘들고, 옆·뒷모습을 담은 대부분 연작

과 다르게 정면을 향하고 있어 희소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에 따르면 특별전 개최 전 미술관의 평일 관람객은 하루 20~30명 선에 머물렀지만, 전시 첫날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몰렸다. 이후에도 평일에는 하루 평균 180명, 주말과 휴일에는 280여 명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고자 미술관을 찾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5월 19일에는 360여 명이 방문해 특별전이 시작된 이후 하루 최다 관람 인원을 기록했다.

또 양구주민 뿐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과 수도권, 멀리 경남과 제주에서도 찾아올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인목 군수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기증해준 고 이진희 회장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귀한 작품들이 양구로 오게 돼 가슴 뛰며 이를 통해 박수근미술관이 국제적인 미술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

2021 박수근미술관 아카이브 특별전 2021.5.6. - 10.17

자작나무 기증에서 박수근 작품기증으로 이어진 귀한 인연, 박수근의 고향으로 돌아온 작품 18점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 한가한 봄 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업은 소녀



■ 관람안내 ■

관람시간 9:00 - 18:00  
관람예약 네이버에서 '박수근미술관' 검색 후 예약 진행  
휴관일 매주 월요일, 추석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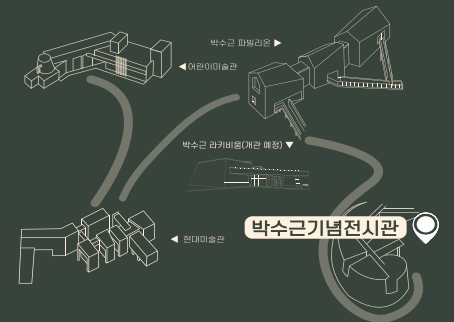
2021 박수근미술관 아카이브 특별전

### ‘한가한 봄 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업은 소녀’

‘이진희 컬렉션’ 기증작 18점, 박수근미술관 소장품 43점이 전시됩니다.

■ 사전예약방법 ■

NAVER 박수근미술관 → N 예매 → 이메일정방문 → 현장결제 후 관람권 발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문의) 033-480-2655